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부자보다 컸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하위 10% 6.15배·상위 10% 0.29배 그쳐 다주택 가구 자산, 무주택 가구 19배 달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액 자체는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은 탓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재산세 소득재분배 효과 '마이너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 (1분위)의 재산

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 (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것이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가령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에 그쳤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주택 가구 순자산 43.4% 증가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천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천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천만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순자산 중위값은 3천39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610만원 늘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로 집계됐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코로나 학원' 휴학 증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신입생과 상위

권 대학을 중심으로 휴학생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연세·고려대의 휴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1.7~2.6%포인트(p) 올라갔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코로나 학원'들이 반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한 대학생도 43.6% 늘었다.

이 기간 이공계열의 경우 취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인문·사회계열 고용률은 6.1%p 급락했다.

국내 보이오피싱 범죄가 처음으로 발생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 금액은 3조8천68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오피싱 1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 1천699만원에서 지난해 2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농어촌공-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협약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한청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농업 관련 진로 탐색 및 취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한청원(부산시 해운대구) 대회의실에서 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구길도 원장과 윤효식 한청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83개 사회적 농장과 220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 역량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을 위해 적극 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기수희기자



호텔서 자율주행하는 배송 로봇. 현대차그룹이 수원 주상복합 단지 '광고 엘리웨이'와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호텔에서 서비스하는 현 대차그룹 자율주행 배송 로봇. <현대차·기아 제공>

전남신보 "배달앱 '떡깨비' 회원에 쿠폰" 광주문진원, 제9대 원장 공모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연말연시 이벤트를 14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는 배달음식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을 맞아 신규회원 가입자 확대 및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연말연시 이벤트는 총 4만7천명을 대상으로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을 위한 할인쿠폰과 4천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으로 구성됐다.

할인쿠폰은 신규회원 선착순 8천명에게 1만원, 기존 회원에게는 매일 3천원의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한다.

경품 이벤트는 14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떡깨비 이용 2회 이상 주문 결제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캐시패 자동차(1명), 2등 노트북(2명), 3등 떡깨비 1만 포인트(2천20명)를 제공한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 증액된 사업비를 활용해 떡깨비를 홍보하고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수희기자

광주문진원, 제9대 원장 공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9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번 공개 모집에서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기관의 경영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찾는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신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년 1월 2~4일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간제 보육·돌봄 확대...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택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 2조3천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 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 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연합뉴스



중흥그룹 '사랑의 현열 캠페인'

중흥그룹은 지난 12일 중흥건설 사옥 앞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현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열 캠페인은 지난 8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한파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기수희기자



한전KDN,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

한전KDN은 지난 12일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입사식은 김장현 사장과 박종섭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신입사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사원 대표의 사령장 수여, 회사배지 부착, 웰컴박스 수여 등이 진행됐다. /기수희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